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미국 국채 수익률이 7월 유독 큰 폭 하락한 이유
 - ◇ (초점)-코스피 상승은 스타들에 의한 '착시'..수출 회복이 열쇠
 - ◇ (초점)-기재부, 한은 차입 역대 최대 가능성..단기자금시장 혼란 지속 예고하나
 - ◇ (초점)-국민연금의 공격적 해외투자 확대 속 조명받는 외환조달 방안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피로감에 젖어 있는 가운데 영국의 한 해변에서 방문객들이 일광욕을 즐기며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로이터/토비 멜빌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84.7	0.6%	-2.4%	-3.5%	유로	1.1786	0.1%	5.1%	-2.3%
100엔 대비	1,122.0	0.5%	-5.3%	-4.4%	엔	105.91	0.0%	2.5%	0.9%
유로 대비	1,401.0	0.3%	-7.7%	-1.3%	위안	6.9538	0.8%	0.1%	-1.3%
위안 대비	170.57	0.3%	-2.8%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7,433.48	3.8%	-3.9%	22.3%
코스피	2,351.67	4.5%	7.0%	7.7%	나스닥	11,010.98	2.5%	22.7%	35.2%
코스닥	857.63	5.2%	28.0%	-0.9%	S&P500	3,351.28	2.5%	3.7%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59.57	1.4%	1.2%	15.8%
국고채 3Y	0.810%	1.4bp	-55.0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058%	2.7bp	-42.2bp	-40.4bp	미국채 2Y	0.129%	2.0bp	-143.2bp	-93.7bp
국고채10Y	1.319%	2.3bp	-36.4bp	-26.5bp	미국채 10Y	0.566%	3.3bp	-134.4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1.22	2.4%	-32.5%	34.5%	한국 5Y	22.2bp	-0.4bp	1.1bp	-17.0bp
금(현물)	2,034.62	3.0%	34.1%	18.3%	일본 5Y	16.1bp	-0.9bp	-1.7bp	-4.0bp
TR상품지수	2,391.77	1.6%	-3.8%	4.8%	중국 5Y	40.4bp	-2.1bp	9.7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8월 10일(월)>

- 금감원,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1:00)

<11일(화)>

- 관세청, 8월 1-10일 수출입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10:00)
- 기재부, OECD 2020 한국 경제 보고서 발간(15:00)

<12일(수)>

- 통계청, 7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부총리 제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8:00)
- 금감원, 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7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13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7:30),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9:00), 1차관 회의 결과 브리핑(10:30)
- 한은, 6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한은,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거래소,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16:00)

<14일(금)>

- 한은, 7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8월 최근경제동향(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8월 10일(월)>

- 중국, 7월 생산자·소비자 물가지수 (10:30)
- 유로존, 8월 섉덱스지수 (17:30)
- 미국, 7월 고용추이 (23:00)
- 일본, 싱가포르 휴장

<11일(화)>

- 일본, 7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6월 경상수지 (08:50)
- 미국, 7월 NFIB 기업 낙관지수 (19:00)
-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21:30)

<12일(수)>

- 유로존, 6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21:30)
- 미국, 7월 연방예산 (13일 03:00)
- 뉴질랜드, 뉴질랜드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

<13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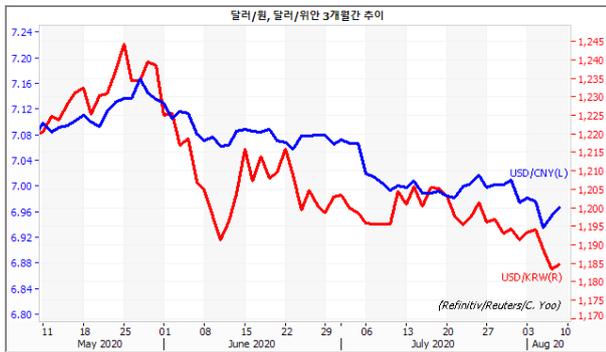
- 미국, 7월 수입·수출 물가 (21:30)
- 미국,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14일(금)>

- 중국, 7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7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 (18:00)
- 미국, 2분기 노동비용 잠정치 (21:30)
- 미국, 7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7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6월 기업·소매재고 (23:00)
- 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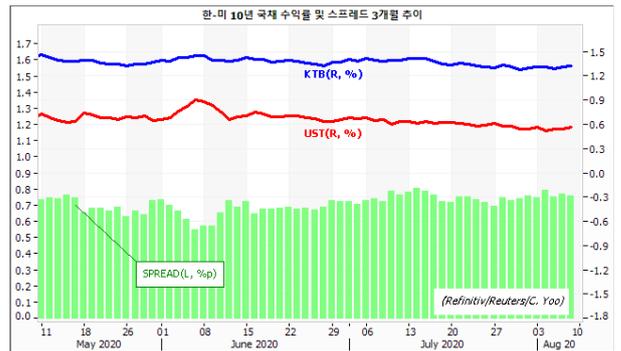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 3주일간 연속 하락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약달러 추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 및 코로나 19 상황 등 유동적인 주변 여건 속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 그동안 전 세계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당국이 퍼부는 막대한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위험자산 가격은 어떤 재료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상승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장 중 한때 1183.0원까지 떨어져 1180 선을 위협하며 코로나 19의 세계 확산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3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 그런데, 달러지수가 지난 주말 크게 반등하며 주간 기준으로 보합권에 마감했다. 여전히 수준 자체는 2년 만의 최저치 근처에 머물고 있지만, 글로벌 달러가 반등세를 이어갈지 여부가 이번 주 국제 외환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 미-중 갈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5일 양국 고위급 대화가 예정돼 있어 주중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적으로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귀환 가능성이 관심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5820 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해 6개월 만에 처음 순매수를 기록했다.
-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경제지표로는 11일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과 1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7월 고용동향,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최근 경제 동향' 8월호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 결과와 미-중 갈등 전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할 전망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우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
- 미국 의회의 협상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경기 부양책을 실행한 만큼 일각에서 우려됐던 소비절벽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상됐던 만큼 주식시장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매매가 늘어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속 여부는 채권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기업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정부는 틱톡에 이어 채팅앱 위챗에 대한 기습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틱톡보다 오히려 파장이 큰 건 위챗이다. 위챗의 모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텐센트다. 물론 텐센트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선 건 아니지만, 향후 추가규제시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 중국이 아무런 카운터 펀치를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매를 맞고 있는 것도 걸린다. 중국이 신중하게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만남은 갈등이 더 격화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 국내 채권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포지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분간 이같은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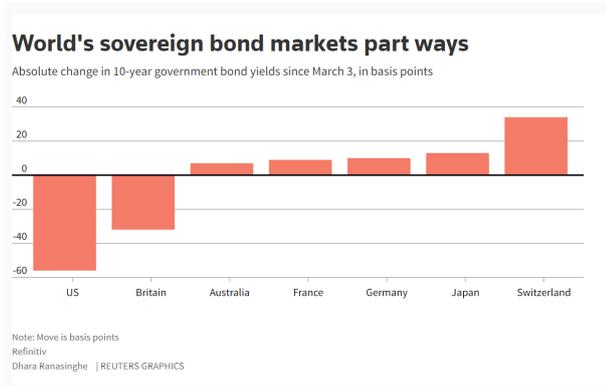
(그래프/분석)-미국 국채 수익률이 7월 유독 큰 폭 하락한 이유

런던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로 경제회복이 위협받으면서 7월 주요국 국채 수익률이 대부분 하락했다. 그런데 코로나 19 판데믹이 시작된지 5개월여 지난 지금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채 시장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의 국채 수익률은 유럽이나 일본의 수익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각국 경제 상황이 국채 수익률 추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7월에 약 20bp 하락해 전체 수익률 커브가 상당 기간 1%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을 열었다. 10년물 수익률은 3월 이후 최저치 부근으로 7월에만 55bp 하락했다.

반면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같은 기간 10bp 올랐고 일본 국채 수익률도 15bp 가량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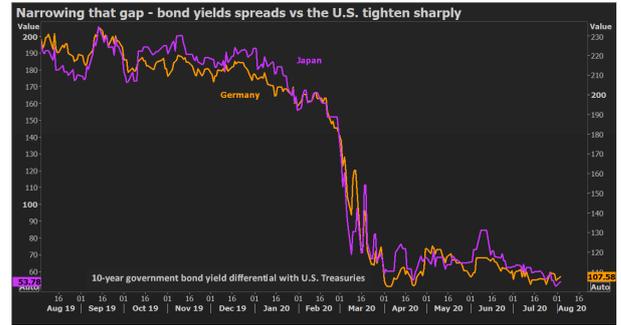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 카즈미 UBP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과 독일 국채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양국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의 차이와 그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 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 부양책을 언급하며 "여기에는 재정 정책적 요인도 있다. 미국은 아

직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회복기금이 통과되면서 향후 수년간 소비진작이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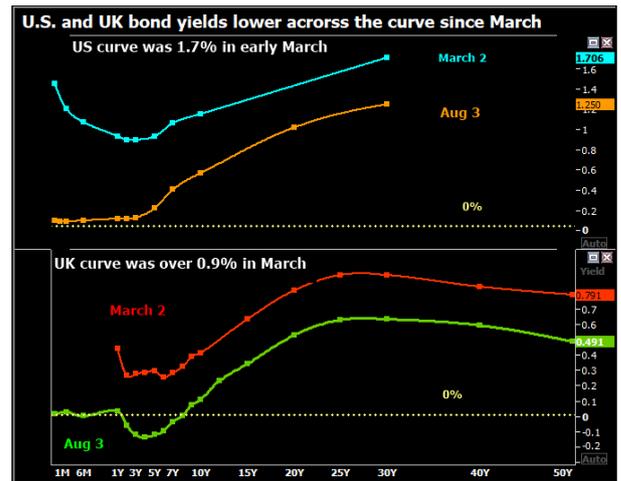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피치 레이팅스는 신용 약화를 이유로 31일(현지시간)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 의원들은 새로운 부양책에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지 못한 것은 2분기 연율 기준 33% 수축한 미국 경제가 침체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영국이 금리를 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다. 이는 독일과 일본 국채 대비로 미국과 영국 국채 수익률 프리미엄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줄리안 르 베론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채권 담당 CIO는 "비록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이 G10 국채를 지지할 수 있지만 일부 시장의 상대적 밸류 에이션이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국채 수익률은 8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블랙시드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금리도 거기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이며 지난 4월 말에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실질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코스피 상승은 스타들에 의한 '착시'..수출 회복이 열쇠

서울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서울 주식시장 코스피가 코로나 19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고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는 극소수 '스타 플레이어' 대형주의 가격 급등에 따른 착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풍부한 유동성과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는 주가에 우호적이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수출 부진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세적인 주가 상승에 필수적인 기업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 '스타 플레이어'

코스피는 코로나 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한 뒤 추가로 상승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3.5% 올랐다. 이런 코스피 상승에는 신약 개발,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 전기자동차 성장 등의 재료 속에 바이오, IT, 2차전지 종목들의 선전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상승세가 두드러진 대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LG 화학, 삼성 SDI 등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이들 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50% 이상, 저점에서는 100% 넘게 급증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바탕으로 로이터통신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코스피 시가총액은 65.4조원, 4.5% 증가했는데, 앞의 6개 종목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37.4조원, 2.8% 감소했다.

여기에 7월 신규 상장된 SK 바이오팜까지 제외하면 코스피 시가총액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계산됐다. 결국, 올해 들어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 상승은 극소수 대형주들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착시 현상인 것이다.

▲ '실적 개선 → 외국인 귀환' 고리 출발점은 역시 수출

유가증권시장이 '부익부 빈익빈'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기업실적이 개선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수출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부진의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수출은 코로나 19 충격 이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추정된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연초 대비 25%가량 감소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수출과 기업 실적 부진에 외국인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순매도했다. 7월 순매수 전환도 월간 순매수 규모의 274%가 삼성전자에 쏠리면서 달러 약세에 따른 비중 확대 성격에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지금까지 코스피가 상승했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기업 실적 개선도 미루어지고 있어 하반기 코스피 상승 추세 여력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예상대로 기존 우려보다는 양호한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본격적인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재차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하반기 글로벌 경기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도 3일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된 7월 초 이후로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은 개선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높게 집계된다"면서 "코로나 19 국면 이후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었던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전망에 비해 하반기 실적의 조정폭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초점)-기재부, 한은 차입 역대 최대 가능성..단기자금시장 혼란 지속 예고하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초래된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차입 규모를 급격히 늘린 가운데 재정자금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단기자금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데 이어 세수 감소폭 확대로 재정자금 유출입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자금시장 안정을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한은 올해만 세 차례 지준마감일 시장개입..재정 자금이 원인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장 마감 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섰다. 이날 RP 매입에는 9천억원이 응찰해 자금을 받아 갔다.

한은이 지급준비금 마감일에 전격 RP 매입에 나선 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정부의 재정자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자금판에 문제가 생긴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4월과 6월에도 은행이 자금조정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RP 매입으로 구제의 손

길을 내밀었던 만큼 반복되는 한은 개입에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A 은행의 한 자금 담당자는 "자금판에 변수가 생기는 건 항상 있던 일인데 문제는 은행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변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지급준비금을 맞추는 것인데 지금은 한은이 항상 맞춰주니 그러려면 지준 적립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위급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결국 언제까지 한은이 책임져 주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역대 최대 한은 차입..정부자금 변동성 확대 전망 어려워져

하지만 일부에선 기재부의 단기 차입 규모 확대와 재정자금의 변동성 확대에 지준 전망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지준 마감일을 앞두고 정부 자금 유출입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자금 유출입 확대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지난 6월처럼 레포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지준 마감 직전의 레포 시장 불안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은이 단기자금 시장에 연달아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B 은행 자금부장은 "재정자금이 예상과 다르게 펑크가 나면서 은행들이 불안해했다"며 "한은이 RP 매입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레포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했고 그 결과 이번 지준 마감 때 레포 시장은 안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자금 변동성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해 기재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세출을 할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먼저 융통한 후 추수 세입을 통해 빚을 갚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단기 차입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차입을 통해 기재부가 조달할 수 있는 단기자금의 한도는 올해 30조 원으로 정해져 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정부의 긴급 자금지출이 늘면서 기재부는 30조원의 단기자금 한도에 거의 육박한 수준에서 세입-세출 미스매칭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7월 말 부가가치세 유입으로 현시점에는 기재부의 단기자금 운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계속 뻑뻑하게 단기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라며 "상반기에 자금 집행도 많았고 세정 지원도 늘어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도 한 번에 나가다 보니 국채 수입과 매칭시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세수가 잘 들어와서 한은 차입이 거의 없었다"며 "올해 한은 차입이 역대 최대일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정부 자금 변동성 클 듯..자금시장 낙관 금물

현재 기재부 단기자금 운용의 문제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기재부가 이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기 차입 상황과 추가 차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세수 상황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관련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코로나 19, 폭우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세금 납부 연장 조치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시장의 한 관계자는 "지준 자금 예측에는 정부 자금 유출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기재부가 워낙 예상하기 어렵게 자금을 운용한다"며 "세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이자 비용에 굉장히 민감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라 돈이 모자랄지 남을지 예측이 어렵게 됐다"며 "은행들 입장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재정 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 자산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자금시장의 경우 매년 9월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경계심리가 분명히 있다"며 "LCR 비율이 완화됐기 때문에 올해는 은행들이 예년보다 자금을 여유롭게 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LCR 비율을 믿고 가만히 있느니 미리 맞춰 놓자고 하는 은행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기자금 상황은 상당히 여유가 있지만 8월 이후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지금 기재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우리도 정부와 협조해 잘 이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절도 있는 단기자금 운용보다 시장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점)-국민연금의 공격적 해외투자 확대 속 조망받는 외환조달 방안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향후 5년간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계획과 이에 따른 달러 조달 방안 등에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새삼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문에서 "2020년 4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725.8조원으로 2024년에 기금 규모는 1000조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시장 한계 극복, 분산투자를 통한 안정성 제고, 미래 유동성 회수 시 시장충격 최소화 등을 고려해 해외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중기 자산배분안에서 작년 말 35% 수준이었던 해외투자 비중을 2024년 50%, 2025년 55%까지 확대할 목표를 세웠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해외투자 종합계획안을 이번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에 대한 직접 운용 확대와 다양한 액티브 전략 도입, 해외채권 중 투자기준 내 신흥국 국채 및 고수익 채권 제한적 편입 및 대체투자 집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 조달 환경 개선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 대목을 주목했다.

▲ 조달방식 다양화 실행?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외화 조달과 국내 외환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 외화 단기자금 시장에서 선조달, 스왑을 통한 조달 및 미국 단기채권을 통한 조달 방안 등을 내놓았다.

다만 이 방안들은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규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한 기금운용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향후 외환 조달 개선 방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화 단기자금 한도와 관련해 논의하거나 진전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단기자금 한도는 현재 6억달러다.

다만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해외투자에 따른 차익 실현보다는 신규 투자 물량이 더 큰 만큼 단기자금 한도 인상에 따른 환시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 해외투자 확대 따라 커지는 시장 영향력

국민연금은 환 헤지 오픈 정책에 따라 해외투자 환 헤지 비율은 0%로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는 대부분 현물환 시장을 통해 조달한다.

다만 현재 주로 시장평균환율(MAR) 거래를 통해 조달 중인 데다, 앞서 언급한 방안 등을 통해 달러 조달에 따른 환시 영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MAR 거래를 통하거나, 선도 환 또는 스왑 시장을 통해 달러를 조달한다 해도 절대적인 달러 수요 증가에 따른 환시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삼성선물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목표와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과 관련한 달러 수요를 연간 300-400억달러 상당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한 시장 참가자는 "국민연금이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밝혔지만 어떤 방식이라 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시장 참가자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는 지속될 텐데 환율이 빠질 때마다 현물환으로 달러를 매수하고 이를 외환스왑시장을 통해 셀 앤 바이 거래를 하면서 외화를 분산 조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환율은 쉽게 빠지지 못할 테고 스왑시장도 재정 거래 이외 비드 수요가 생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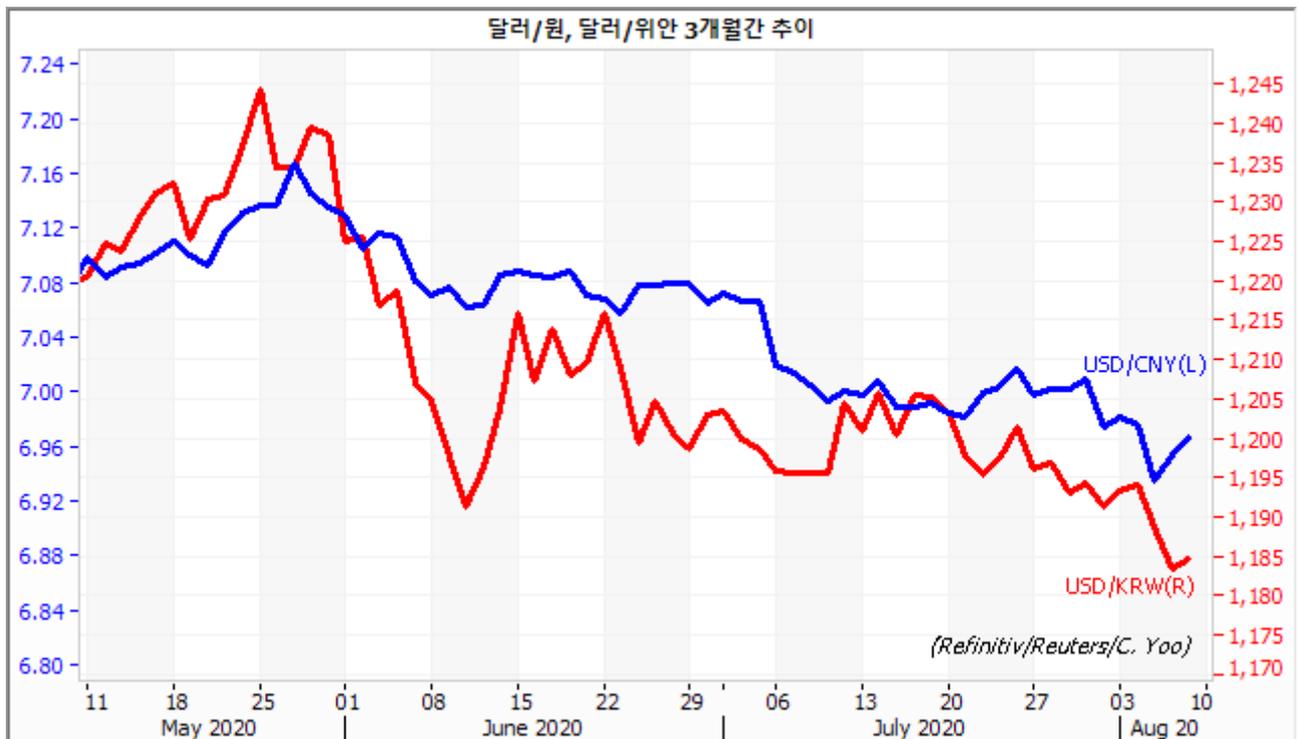
달러/원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달러 수요는 원화 강세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HSBC는 지난달 발표한 이머징 FX 보고서 중 원화 관련 전망에서 "해외투자 다변화에 따른 구조적 자본 유출 증가는 원화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강세 전환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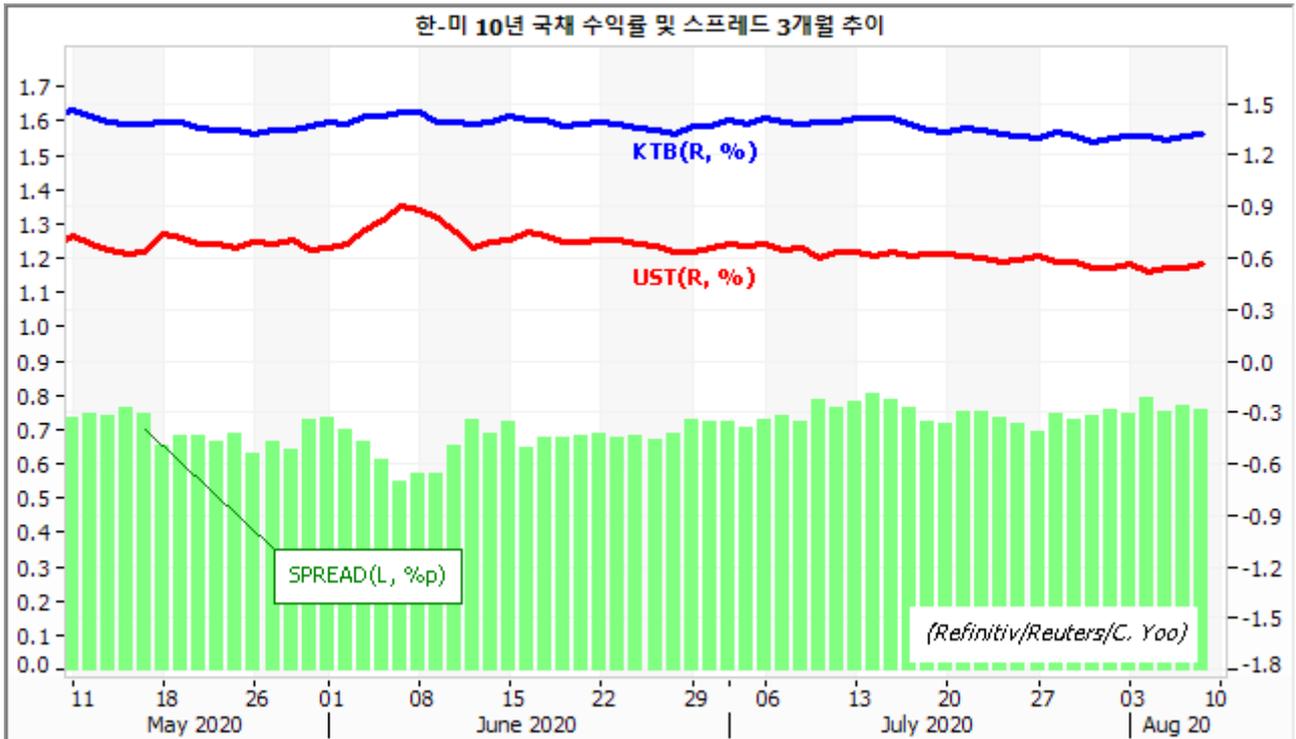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World's sovereign bond markets part ways

Absolute change in 10-year government bond yields since March 3, in basis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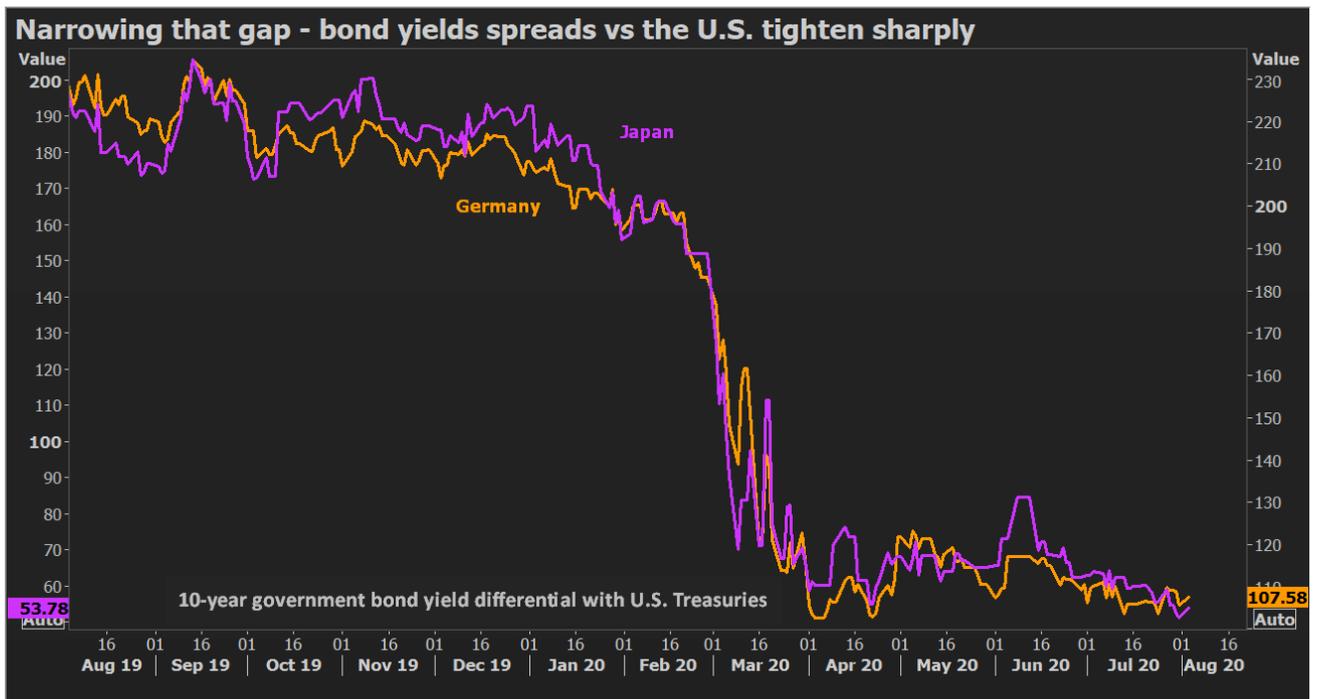


Note: Move is basis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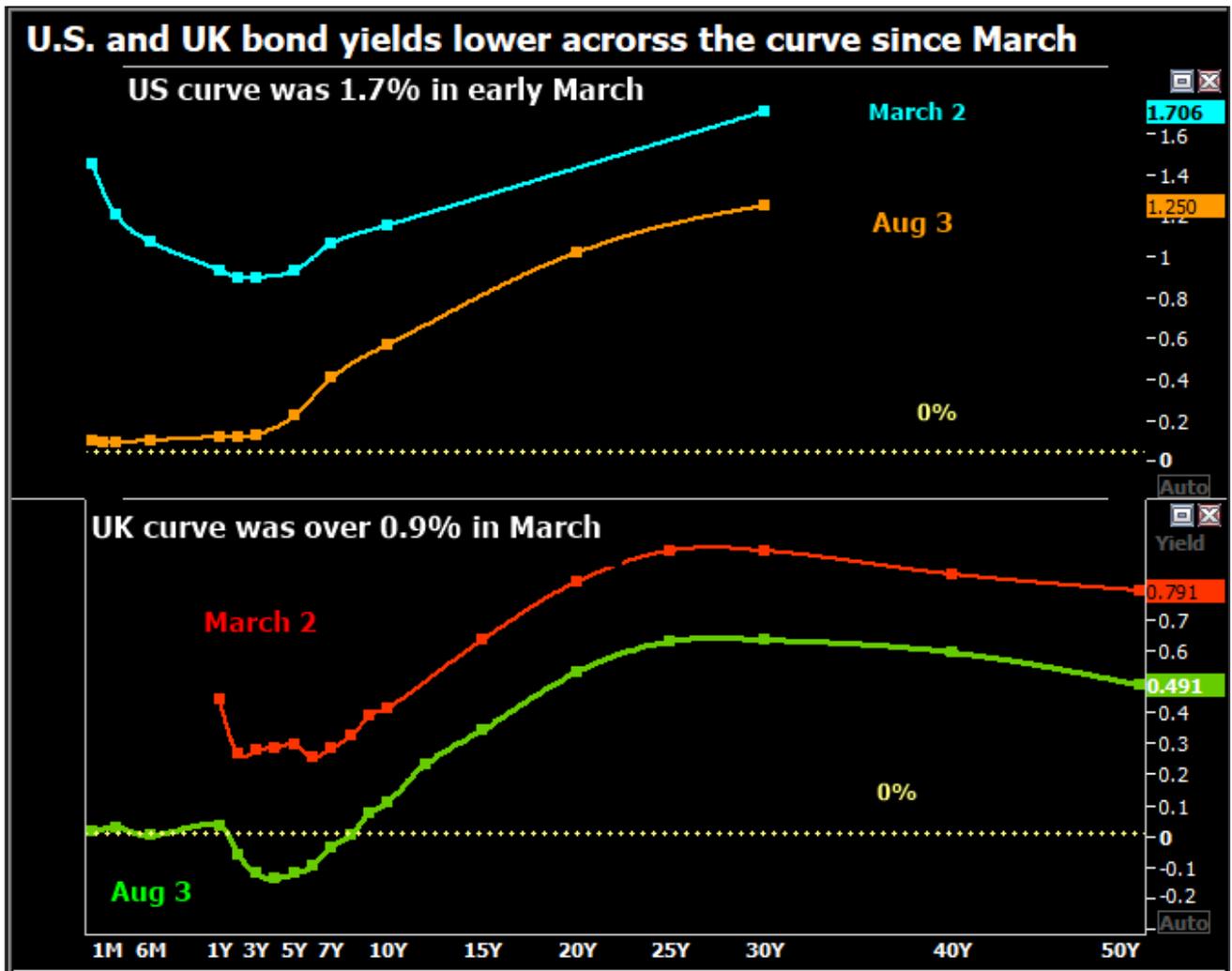
Refinitiv

Dhara Ranasinghe | REUTERS 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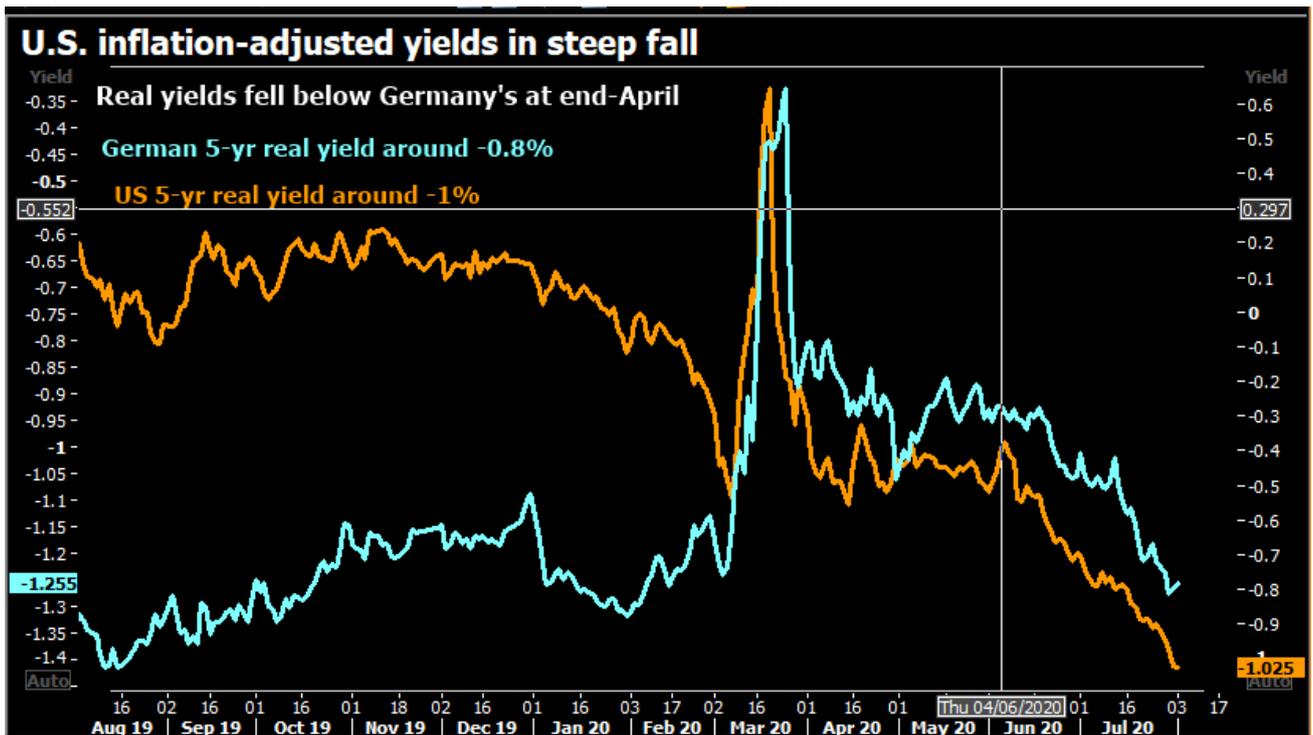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